

AUTHOR 최윤배

TITLE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교회일치적 활동에 나타난 교회론

IN 장신논단
vol.20 (2003): 161-183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교회일치적 활동에 나타난 교회론

최운배(조직신학 조교수)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마르틴 부처(Martin Bucer = Butzer, 1491-1551)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본고에서 개혁파 종교개혁자 부처의 에큐메니칼적(교회일치적) 사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개혁신학 전통에서 교회의 에큐메니칼성에 대한 고전적 기초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부처의 생애를¹⁾ 시작으로 연대기에 따라 서신서 등 역사적, 신학적 자료들을 참고하

1) G. Anrich, *Martin Bucer*, Straßburg 1914; J. W. Baum, *Capito und Butzer*, Nieuwkoop/B. de Graaf 1860; H. Bornkamm, "Martin Bucer: Der dritte deutsche Reformator," in: idem, *Das Jahrhundert der Reformation: Gestalten und Kräfte*, Göttingen 1961, S. 88-112; H. Eells, *Martin Bucer*, New Haven 1931; K. Exalto, *Een pastorale gemeente*, Apeldoorn 1986; M. van Campen, *Martin Bucer: een vergeten reformator 1491-1551*, s'-Gravenhage 1991; M. Greschat, *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e Zeit 1491-1551*, München 1990; H. Joisten, *Der Grenzgänger: Martin Bucer: Ein europäischer Reformator*, Stuttgart 1991; W. Köhler, *Dogmengeschichte II*, Zürich 1951; M. de Kroon e.a., *Bucer und seine Zeit*, Wiesbaden 1976; A. Lang, *Der Evangelienkommentar Martin Butzers und die Grundzüge seiner Theologie*, Leipzig 1900(Aalen 1972); A. Lienhard, *Martin Butzer*, Straßburg 1914; H. J. Selderhuis, *Huwelijk en echtscheiding bij Martin Bucer*, Leiden 1994; W. P. Stephens, *The Holy Spirit in the Theology of Martin Bucer*, Cambridge 1970; W. van't Spijker, *De ambten bij Martin Bucer*, Amsterdam 1970(= J. Vriend e.a. trans., *The Ecclesiastical Offices in the Thought of Martin Bucer*,

여 분석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²⁾ 에라스무스,³⁾ 루터,⁴⁾ 쾰빙글리,⁵⁾ 재세레파와 열광주의 운동들,⁶⁾ 쾌락 자유주의파,⁷⁾ 기타 당대의 다른 사상과 종교⁸⁾ 등은 부처에게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말씀의 신학자, 성령의 신학자, 교회의 신학자”로서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 입

Leiden/New York/Köln 1996); H. Strohl e.a., *Martin Bucer 1491-1551*, Lichtweg 1951; F. Wendel, *Martin Bucer: Esquisse de sa vie et de sa pensée publiée à l'occasion du 4e février 1551*, Strasbourg 1932; G. H. Williams,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1952.

2) L. Leijssen, *Martin Bucer en Thomas van Aquino: De invloed van Thomas op het denkpatroon van Bucer in de commentaar op de Romeinenbrief(1536)*, Leuven 1978; idem, “Martin Bucer und Thomas von Aquin,” in: *Ephemerides Theologicae Lovanienses* 55, Leuven 1979, S. 266-296.

3) F. Früger, *Bucer und Erasmus: Eine Untersuchung zum Einfluss des Erasmus auf die Theologie Martin Bucers*, Wiesbaden 1970; N. Peremans, *Érasme et Bucer d'après leur correspondance*, Paris 1970.

4) A. Wiedeburg, *Calvins Verhalten zu Luther, Melanchthon und dem Luthertum(Diss.)*, Tübingen 1961.

5) H.J. Selderhuis, “Bucer en Zwingli,” in: F. van der Pol(red.), *Bucer en de kerk*, Kampen 1991, pp. 55-56.

6) Cf. W. Balke, *Calvijn en de doperse radikalen*, Amsterdam 1970, pp. 1-5; J.N. Bakhuizen van den Brink e.a., *Handboek der kerkgeschiedenis 3: Reformatie en contra-reformatie*, Leeuwarden 1980, pp. 97-108; M. Greschat(Hrg.), *Die Reformationszeit I*, Stuttgart 1981; R.M. Jones, *Spiritual Reformers in the 16th & 17th Centuries*, London 1914; C. van der Valk, *Bucer en de dopersen tot het jaar 1532(D.S.)*, Gouda 1976; G. H. Williams(red.), *Spiritual and Anabaptist Writers*(=LCC XXV), London 1957; idem, *The Radical Reformation*, Philadelphia 1952.

7) M. Lienhard, *Croyants et sceptiques au XVIe siècle: Le dossier des 'Epicuriens'*, Strasbourg 1978; G. Livet e.a. (red.), *Strasbourg au coeur religieux du XVIe siècle*, Strasbourg 1977.

8) A. Hyma, *The Christian Renaissance: A History of the "Devotio Moderna"*, Grand Rapids 1924, pp. 40, 340, 349.

장을 견지했다.⁹⁾

부처는 1491년 11월 11일에 알자스 지방의 쉴레트슈타트(Schlettstadt)에서 태어났다. 부처는 이 곳에 있는 고전 라틴어 학교를 다니면서, ‘현대경간 운동’과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15세 때 쉴레트슈타트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철저히 연구했다. 1515년 말경에 그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수도원으로 옮겨갔다. 여기서 그는 그가 이미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고 배웠던 ‘인문주의’에 다시 관심을 기울였다.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에서 루터가 신학논쟁을 하고 있을 때, 부처는 그를 만나 종교개혁자가 되었다.

마침내 부처는 1521년에 자신이 처음 수도원에 들어갈 때 맹세했던 수도원 서약을 교황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바로 그 해 4월 교황은 부처가 행한 수도원 서약을 해제해 주었다. 부처는 1522년 여름에 수녀였던 엘리사벳 질베라이젠(Silbereisen)과 결혼한 뒤, 그 해 겨울 내내 바이센부르크(Weissenburg)에서 복음을 설교했다.

부처가 1523년 5월 중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왔을 때, 이 도시에서는 이미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지고 있었다. 그 해에 그는 그의 최초의 작품,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1523)를 출판했다.¹⁰⁾ 부처는 유명한 대부분의 국제 종교간의 대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울름(Ulm), 쾰른(Köln), 특히 헤센(Hessen) 지방 등에 초청되어 종교개혁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조언했지만, 그는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1549년까지 내내 스트라스부르에서 사역했다.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 가톨릭 교회 진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어(Intrim, 1549) 스트라스부르에 다시 미사가 회복되어, 더 이상 종교개혁 운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부처는 복음 때문에 새로운 정치상황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영국으로 망명하게 된다.

9) W. van't Spijker, “De kerk bij Bucer: het rijk van Christus,” in: idem(red.), *De kerk: wezen, weg en werk van de kerk naar reformatiorische opvatting*, Kampen 1990, pp. 127ff.

10) *Das ym selbs(1523)*, in: R. Stupperich(Hrg.), *Martin Bucers Deutsche Schriften*, I, Gütersloh 1966ff(= MBDS), 44-67.

그는 1549년 4월 6일에 출발하여 4월 25일에 영국 런던에 도착하여 어린 왕 에드워드 6세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립대학명에 교수로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을 도왔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영국에서 1551년 2월 28일에 소천했다.

우리가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자 하는 문제는 부처가 그의 에큐메니칼적 열망 속에서 어떻게 그의 에큐메니칼적 교회론을 형성했는가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가 강력하게 구사했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제일 먼저 우리는 교회자체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개신교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교회의 일치

부처는 교회의 일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특별히 그의 작품 『올바른 목회론』(Von der waren Seelsorge, 1538)에서 부처는 교회의 이상형(理想形)을 그렸다. 여기서 그는 기독교론으로부터 규정되는 두 가지 요소, 즉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 사이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부처가 그가 사역하던 스트라스부르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이 작품을 기획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부처는 이 작품 속에서 “이 불행하고도 치명적으로 해로움을 주는 종교의 균열과 분열로부터 교회의 참된 통일성과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다시 이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들”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¹¹⁾ 부처는 이 책의 서두에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고유한 영역 및 한계들과 교회의 질서(정치)에 대한 지식이 한탄할 만한 정도로 태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영적으로 아무 것도 받지 않아도, 그들이 교회의 회원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혼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상호간의 지체들이 되어야함을 누가 알고 있는가? 향간에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은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11) MBDS VII, 90.

부처는 지적한다. 복음의 빛이 새롭게 다시 동터 오는 것처럼 보인 이래로, “많은 이단종파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교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¹²⁾ 부처는 교회의 일치성을 “의식(儀式)이나 외형적 방법들 속에서가 아니라, 순전한 복음에 대한 순종과 주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 속에서” 파악한다.¹³⁾ 바로 여기에 교회의 일치성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의 지체들에게 최선의 상태가 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¹⁴⁾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교제) 속에 있다. 부처는 이 같은 기독교론적 모티브를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그의 관점에 대한 출발점으로 사용했다. 그러므로 부처는 스트라스부르의 이단종파(특히 재세례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자행한 잘못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들은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설교를 선포했고,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교제)과 그리스도의 몸의 구별을 촉구하지 않았다. 초기 단계에서는 신앙의 열매들이 이단종파들의 무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사람들은 이단종파의 지도자들의 교리와 신실성과 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운동은 항상 그렇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참으로 의지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도 있었다. 소위 “열광주의자들의 스승”(rottenmeister)은 사람들을 기존 교회로부터 떠나가도록 충동시켰지만, 그들은 그들을 따르는 작은 무리들 속에서 엉덩퀴들과 가시들만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다.¹⁵⁾

이 작품 속에서 부처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실천과 일치하는 교회구조(직제와 정치)를 제시한다. 부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수단만이 있는데, 이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성이 이룩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수단이라는 것은 목회의 방법으로서 교회 공동체 전체와 교회의 각각의 지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치리’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의 임무를 가져야 한다. 교회 속에서 교역자들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각각의 지체는 그리스도에게

12) MBDS VII, 93.

13) MBDS VII, 95.

14) MBDS VII, 95.

15) MBDS VII, 97.

속한 지체이며,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교회의 구축을 위한 구원 사역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가지게 된다.¹⁶⁾

부처의 교회의 구축에 대한 사상은 성서로부터,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성령의 지배권으로부터 나온 사상이다. 교회의 일치성은 바로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교회는 아주 본질적인 일치를 형성하고, 특별히 생동적이고도 사랑이 넘치는 연합(교제)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부처의 작품은 오랫동안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 보전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역시 실제적으로 유익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속에서 왕으로서 통치권을 행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통치권을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을 통해서' 행사하신다.¹⁷⁾ 이 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곳마다 외적인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어 진다. 외적인 문제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항상 추구되어야만 하는 교회의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외적인 문제들은 지역교회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다. 남부독일(특히 스트라스부르)과 스위스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부처는 외적인 문제들을 그가 처했던 상황과 연관시켰다. 이 교회들 사이에 총회적 유대(관계)는 생기지 않았다. 교회의 일치성은 지역교회들의 일치가 우선적이었다. 물론 총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국가 속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지배권을 가졌다.¹⁸⁾ 이 같은 직접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역시 의식(儀式)과 교회질서(교회정치)의 일치도 모색했다.

부처는 제세례파들과의 대화 모임들 속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교회일치사상으로부터 출발했다. 부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제세례파들로 개종하여 교회일치를 깨뜨리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했다. 결국은 타락과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는 분열과 분리 속으로 자신의 금욕주의적 경건을 강요하는 제세례파들을 볼 때, 부처는 그들에게 매우 비판적이게 되었다. 부처는 제세례파들에게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종교개혁적 관점에서 제세례파들이 갖고 있는 기록성의 개념을 받아

16) MBDS VII, 101.

17) MBDS VII, 103, 'durch sich selbst und seinen Geist'.

18) F. Wendel, *L'Église de Starsbourg, sa constitution et son organisation 1532-1535*, Paris 1942, 228-235.

들임과 동시에 더욱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의 기록성을 함께 결합시켰다.

III. 개신교의 일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처는 독일 개신교의 일치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했다. 부처의 이 같은 많은 노력들 중에 하나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529년에 개최된 마르부르크의 종교간의 대화(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이다.¹⁹⁾ 여기서 루터와의 만남은 모든 면에서 부처를 완전히 실망시켰다. 루터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설교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면서, "당신은 우리와 다른 영을 가졌다"라고 통명스럽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는 루터와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부처는 그의 『복음서주석』(1530)을 마르부르크 아카데미에 헌정했고, 마르부르크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곳에서 기독교 일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호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²⁰⁾ 부처는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오래 전에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파괴했던 자인 사탄의 분노에 기인한다고 말했다.²¹⁾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교제)에 반대하는 적대자는 인간들의 사상에 너무나도 완고하게 집착하여, 사람들이 한번 받아들인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매료시킴으로써, 사람들은 신적 계시를 통해서 그 교리를 받아들였는지 또는 그들이 성서의 무오의 전승에 의해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곧 바로 선언한다. 이 경우, 비록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올바른 열심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차이점의 원인이 무엇이며, 무지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 만약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시지 않

19) W. Köhler, *Das Marburger Religionsgespräch 1529: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Leipzig 1929, 38.

20) A. Lang, *Der Evangelienkommentar Martin Butzers und die Grundzüge seiner Theologie*, Leipzig 1909, 386-410.

21) *Ibid.*, p. 387.

고,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결집이 없이는 이 땅에 살수 없기 때문이다.”²²⁾

여기에 마르부르크에서 루터의 행동에 대한 부처의 기억이 나타난다. 부처는 루터와 함께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했다. 폭넓은 설명 속에서, 비록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을지라도, 그는 육체와 정신의 강력한 활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육체에 대한 생각들이 성령의 계시로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도 가끔 발생했다.²³⁾ 인간적 약함은 가장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특별히 강하게 나타난다. 인간적 약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부인되는 원인일 수 있지만, 또한 인간적 약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는 원인일 수도 있다.

부처는 우리가 행동하는 매우 단순한 특징을 말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올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 거룩성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자들(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바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다.”²⁴⁾

부처는 이단(異端)과 실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폭넓게 기술했다. 이단은 잘못된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종파를 역시 교회 안에다가 세운다. 이단은 자신을 형제와 자매로부터 격리(분리)시키고, 형제와 자매에게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부인한다. 그러나 단지 실수하는 사람들은 형제와 자매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정당성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다. 비록 동일한 실수에 관한 것일지라도, 이단(haereticus)은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이게 되는 반면, 실수하는 자들은 사랑의 정도에 따라 더욱더 인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단파는 절교를 해야 되지만 실수를 범하는 자들과는 결코 절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맡길 것인가 또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

22) *Ibid.*, p. 387.

23) *Ibid.*, p. 388.

24) *Ibid.*, p. 390.

할 것인가이다. 이 같은 일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는 결코 형제의 손길을 뿌리쳐서는 안 된다.²⁵⁾ 바로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적 평화의 끈(유대)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교리들 사이를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지게 되고, 다른 경우에는 기독교적 평화의 유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곧은 양심과 참된 기독교적 사랑이 여기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 같은 특징들을 보여주는 자가 비록 여전히 어떤 결집들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간주되어야 한다.²⁶⁾ 신앙과 사랑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들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어떤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²⁷⁾

이 같이 매우 단순한 기준을 가지고 부처는 성찬의 문제에 접근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재림하실 때, 전 세계가 그의 앞에서 드러날 것처럼 부처는 심판하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맡기기를 원했다. 부처는 이 모든 확신을 공평무사하게 실현시켰다. 부처는 쾰름과 루터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상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처에 의하면, 그들 사이의 싸움은 단지 말씨름에 불과하며, 전혀 불필요한 싸움이었다고 생각했다. 1534년에 부처는 두 진영들 중에 어느 한 쪽도 참으로 상대방에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다만 두 진영들은 다른 편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공식화했다.²⁸⁾ “그러므로, 내용과 본질 자체에 관한 눈곱만큼의 논쟁도 없었고, 단지 언어의 사용에 관한 한 논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적으로 확신하는 바이다.”²⁹⁾ 부처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말했다시피, 그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영국에서 강의 중에 그의 학생들에게 선언했다시피, 또한 그의 학생들이 적은 강의노트로부터 볼 때, ‘로그마키아’(logomachia)는 방크(Joh. Bancks)에 의해서 차용되었다. 성찬과 관계하여 참된 차이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것

25) *Ibid.*, p. 392.

26) *Ibid.*, p. 394.

27) *Ibid.*, p. 396.

28) M. Goldast, *Politica Imperialia, sive discursus Politici, Acta publica et Tractatus generales*, Frankfurt 1614, 1282.

29) *Ibid.*, p. 1282: “Nobis igitur persuassimum est, in re ipsa nullam esse controversiam: de verbis est.”

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주의자들과 재세례파들과 관계되는 문제였다.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내용과 본질에서 상호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는 말싸움에 불과한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텐베르크 교회와 쾰리히 교회 사이에는 상호 일치되었다.³⁰⁾ 이 강의자료로부터 볼 때, 부처는 루터와 쾰빙글리의 상호 불일치의 원인을 독일에서 종교의 쇠퇴로 보았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체 내용과 갈등에 대해서 양 진영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물론 논쟁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기 위해서 전 독일을 일주했다. 나는 루터와 멜랑흐톤을 방문했다. 나는 쾰빙글리와 불링거를 방문했다. 내가 항상 꿈꾸던 공적 일치를 보존하는데 대한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내가 두 진영으로부터 그들이 성찬에 대해서 느꼈던 내용들을 듣고, 그것을 성찰해 본 뒤에, 나는 그것이 단지 언어적 관점에서 오는 견해의 차이임을 알게 되었다.”³¹⁾

부처는 이 문제를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우리는 부처가 너무나도 순진한 신학자가 아니었나 하고 질문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부처는 그의 당대에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부처는 분명히 성찬에 대한 각자의 고유한 차이점을 알았다. 그러나 부처는 그와 같은 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신학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부처의 신학은 상호 대화적인 신학(communicative theology)이었기 때문이다. 부처의 신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의 대화 속에서 입증되어진다. 이로 인해서 바로 윤리적 실천이 신학을 확증해야만 했다.

부처의 사상에 의하면, 성찬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 성찬을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의 신학적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부처는 그의 자신의 경건 체험의 중심으로부터 다양한 형식들을 통합시킬 수 있었다. 바로 이점에서 그는 그의 형제와 자매를 얻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조금 양보하여 다양한 형식들을 상호 통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신은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

30) Gonville and Caiuscollege, Cambridge, manusc. No. 423: “dissensio non illa quidem de re ipsa, sed de verbis, ut dictum est.”

31) Banck's collegeverslag, 42.

았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기 때문이었다. 부처의 견해에 의하면, 바로 이점에서 양 진영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

부처 자신의 친구들조차도 부처가 선택한 길을 항상 따를 수도 없었거나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 마침내 콘스탄쯔(Konstanz)의 두 블라우러(A. Blaurer, T. Blaurer)와의 냉전의 시대가 왔고, 불링거와의 관계도 결코 좋은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갈뱅은 여기서 부처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 부처는 마침내 『비텐베르크 일치 신조』(1536)에서 루터와의 합의에 도달했고, 갈뱅도 몇 가지 관점들에 대한 양보의 미덕을 통해서 『쾰리히 합의문』(consensus Tigurinus)(1549)에서 불링거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마도 갈뱅이 그의 형식에서 보다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36년 부처가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와 성찬에 대한 문제에서 상호 합의에 도달했을 때, 마침내 싸움에 종지부가 찍혔다. 안리흐(G. Anrich)가 말했다시피, 바로 이 순간에 부처의 신학은 ‘개신교의 상호 연합’ 속에서 완성되었다. 부처 자신의 성찬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 자체인데, 부처의 이 개념은 동일한 신앙으로 살고, 동일한 그리스도로부터 살기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일치의 길을 그가 걸어가도록 박차를 가했다.

IV. 그리스도인들(기독교)의 일치

부처가 독일제국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관계하여 많은 활동들을 펼쳤던 보다 폭넓은 장이 있다. 이 같은 협상을 위한 폭넓은 기초는 수 없이 많은 종교개혁교회적인 가톨릭교도들 속에서 발견되는 의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상호 연합적인 인문주의적 배경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의지 속에서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는 아주 분명히 인식될 수 있다. 1525년에 노예의지 문제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 운동 사이에 상호 분리가 일어났다. 많은 인문주의자들은 루터의 인도 하에 있는 종교개혁운동과 결별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스며들어난 큰 그룹의 신학자들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스트라스부르의 신학자들은 인문주의자들의 그룹들과 아주 규칙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것은 아마도 인문주의자들과 함께 참된 개혁이 시작되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소망했던 부처

의 낙관주의의 한 형태일 것이다. 파렐과 함께 같은 수신자로 된 칼뱅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부처는 교회의 개혁에 대한 그의 노력들에 대해서 회고의 글을 썼다. 부처는 파렐에게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일치 속에서 너무나도 순전하고 완전해 질 수 있어야만 하며, 그래서 모든 미신(迷信)들에 대한 기억은 물론 모든 미신들에 대한 이름들조차도 사라져야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므로, 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많이 이 방향에서 충고를 했다. 이 같은 필수조건이 만족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원했고 다른 곳에서 가진 것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도 항상 포기하지 않고 더욱 노력했다. 나는 순수한 교리(말씀)가 선포되어지며, 성례전의 순전한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아직도 적그리스도의 잔당들이 어디 선가 남아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례전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잔당들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³²⁾

부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 자체가 순전하고도 완전한 종교개혁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같은 부처의 통찰력은 교회의 화해와 회복을 이룩하기 위한 부처의 그칠 줄 모르는 노력의 배경을 형성한다. 당연히 독일 제국 속에서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일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되고, 경건한 사람들과 능력 있는 신학자들과 정치적 수완이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서로 서로 협조한다면, 종교개혁의 미래는 밝아 올 것이라고 사람들은 고대했다. 어떤 면에서 의심이 없는 바는 아니었지만, 부처는 그의 강력한 활동으로 좋은 길목에 섰다.³³⁾

문제는 과연 사람들이 다른 편의 토론모임(colloquium)을 신뢰할 수 있는가 또는 부처가 교회의 일치와 평화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활동들이 그란벨르(Granvelle)와 그의 지도 하에 황제가 파송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목적

32) Calvini Opera XIII, col. 356.

33) M. Lenz, *Briefwechsel Landgraf Philipp's des Grossmüthigen von Hessen mit Bucer I*, Osnabrück 1965, 278. C. Augustijn, *Godsdienstgesprekken tussen rooms-katholieken en protestanten van 1538 tot 1541*, Haarlem 1967, p. 60.

에 의해서 이용당하지 않고 성공을 거둘 수 있는가 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종교개혁 진영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례를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다. 프랑스에 종교개혁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부처는 대표자로서 1534년에 멜랑흐톤을 파리에 초대하였고, 두 블라우어의 편지 속에서 잘 나타나듯이, 멜랑흐톤 자신도 기꺼이 부처의 초청에 응했다. 헤디오(Hedio)가 자리에 앉았을 때, 부처는 가능성들에 대한 그의 관점의 핵심을 주시시켰다. 자료로부터 볼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역시 교회의 일치에 대한 부처의 사상이었음이 드러난다. “교회의 참된 일치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갈구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외에 어떤 다른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는 어떤 연합(교제)도 없기 때문이다. 자연인(自然人)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한다.”³⁴⁾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 모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룹들과 신학자들의 그룹들과 동일한 증언을 유도하는 사람들이 참가되어야 한다. 지체 없이 교회의 평화가 마련되어야 한다.³⁵⁾ 정부의 권위는 분명히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부처는 종교개혁적 정신을 받아들이는 교리들과 의식(儀式)의 수정들이 도중에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부처는 조목조목 그의 개요(nota) 속에서 유효한 신앙조항들을 하나하나 펼쳐 나간다. 여기서 제일 처음의 조항은 칭의(稱義)에 대한 신앙고백이다. 그는 칭의를 성서와의 일치 속에서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는 의식(儀式)들과 고백(고백)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언급한다. 그는 그의 자신의 방법으로 설명했던 ‘참된 현존성’(praesentia vera)이라는 신학적 개념의 도움으로 미사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종교개혁의 진영 속에서도 성찬의 개념을 중심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을 첨가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로 하여금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선행된 총회의 유익과 구성에 대한 그

34) M. Goldast, *op. cit.*, p. 1280.

35) *Ibid.*, p. 1281.

의 관점을 방해하지는 못했다. 여기서 성서와 경건과 모순 되는 어떤 교리도 거부되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것이다. 부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우리 진영으로부터 어떤 것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란 전혀 없다. 만약 교황과 다른 주교들조차도 오직 교회의 구축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조차도 그들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다.³⁶⁾

초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프랑스의 1534년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은 부처가 파렐에게 보낸 편지에서 형식화하였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오직 칭의의 순수한 복음을 위한 공간만 주어진다면, 이것 자체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부처는 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지만, 일리가 있는 그의 친구들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프랑스에서 일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설명하면서 그 일을 계속 추진시켰다. 다시 부처는 참으로 교회(ecclesia)로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다.³⁷⁾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일치 노력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새로운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의 친구들의 반대에 역시 대답했다. 부처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토마스 블라우러(Thomas Blaurer)에게 편지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참으로 우리는 지금도 가식으로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첨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들도 아무 것도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그들의 입장을 찬성할 이유가 없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입장을 비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우정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 자신의 판단 속에서 견고해질 것입니다.”³⁸⁾

부처는 지속적으로 편지를 교환하던 마가레타 블라우러(Margaretha Blaurer)에게 그 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배후에 머물러 있던 교회

36) *Ibid.*, p. 1283.

37) T. Schieß, *Briefwechsel der Brüder Ambrosius Blaurer und Thomas Blaurer I*, Freiburg 1908, p. 643.

38) *Ibid.*, p. 647.

들(로마 가톨릭교회, YBC)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을 우리는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시다라는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형제와 자매는 곰곰이 생각하기를 나는 참으로 바리는 바입니다.”³⁹⁾ 그러나 그 사이에 부처는 그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형제와 자매지만 그들의 비판은 부처를 힘들게 했다. “나는 이 일 전체에 나의 사력(死力)을 다했다. 나는 프랑스의 순교자들과 함께 차라리 그리스도에게 가기를 원한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 나오는 전적으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을 내가 보았을 때, 그것은 나를 소스라치게 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 나는 국민의 의견을 물어 보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에게서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⁴⁰⁾

부처는 프랑스의 기독교의 연합에 실패했을지라도, 독일 기독교의 재연합을 위한 그의 노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독일의 교회회의가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책의 제목이 보여주다시피,⁴¹⁾ 부처는 『Furbereytung zum Concilio』⁴²⁾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옹호했다. 여기서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은 부처가 모든 참된 경건한 사람들 속에 루터교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교도들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부처도 자유로운 독일의 교회회의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교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교황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부처의 교회 개념은 지금 역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목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적 직분과 함께 참된 신자들의 모임이다.⁴³⁾ 교황과 로마

39) T. Schieß, *op. cit.*, II, 814.

40) *Ibid.*, p. 815.

41) 『Wie alle recht Gotßfortigen von beden, yetz fünemmen theylen so man alt-und new gleubige, Bapsttische und Lutherische nennt, zu Einigkeit Christlicher kirchen kommen und sich darin unbewegt halten mögen』(1533)

42) Stupperich, *Bibl.*, No. 41.

43) MBDS V, 266.

가톨릭 성직자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자들이다. 그들은 교회회의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없다. 교회회의에서 지켜져야 할 사항은 성서가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부처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권위는 거룩한 교부들에 의해서 순수한 복음이 확정되었던 고대교회의 권위이다. 부처는 자신이 있었던 교회의 일치를 모든 시대에 똑같이 적용되었던 가장 깊은 경건(pietas) 속에서 발견한다. 경건과 불경건(impietas)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그 자체로서 동일한 자신의 불변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곧고 참된 믿음 속에 있는 진지성과 열심은 고대교부들에게도 있었다.”⁴⁴⁾ 여기서 부처는 점점 더 교회 일치를 위한 그의 노력의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부처가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1541)와 그 이후 종교간의 대화 모임 속에서 만들었던 자료들만이라도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부처가 의도하고 있던 모든 관점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교회의 일치문제였다. 참된 교회의 일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로부터 발생하는 칭의(稱義)의 진리와 동시에 새로운 삶이 순종과 사랑 속에서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칭의의 진리의 일치 속에 있다. 1541년 레겐스부르크 종교간의 대화 모임 속에서 ‘믿음을 통한 칭의’와 관련하여 체결된 타협안을 부처는 위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했다. 부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전가(傳家)적 성격이 충분히 보존되었으며, 동시에 은혜의 효과적(效果的) 성격도 잘 유지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변인들이 그들의 지지자들에 반대해서 이 타협안을 설명하고 변호했는지가 로마 가톨릭 대변인들 측으로부터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부처는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피기우스(Pighius), 엡(Eck), 라트무스(Latmus), 그로퍼(Gropper)는 부처가 그의 『Acta Colloquii』 속에서 출판했던 자료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부처는 종교개혁의 전체 역사(歷史)를 큰 화폭 속에서 그려 보려는 적지 않는 수고를 했다. 부처는 이 같은 이야기들이 교리와 의식(儀式)과 치리 속에서 교회의 참된 화해와 회복의 문제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춰줄 것을 소망했다.⁴⁵⁾

44) *Ibid.*, p. 268.

45) Stupperich, *Bibl.*, No. 73: “De vera Ecclesiarum in doctrina, ceremonii et disciplina reconcillatione et compositione. Hic cognosces veros ortus et progres-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의 이상(理想)은 너무나도 높은 것처럼 보였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은혜의 교리 속에 있는 학문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참 경건에 대한 개념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가장 깊은 배후에 놓여 있는 문제는 교회론 속에서 그리고 성례전과 의식(儀式)의 개념 속에서 찾아야 했다.⁴⁶⁾ 교회론과 관련된 통찰들은 너무나도 다양하여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 모든 논쟁들에 대한 문헌들은 대부분 교회론에 대한 문제들에 의해서 규정되었다.

부처는 ‘필수적인 신앙조항들’(necessaria)과 ‘지엽적인 신앙조항들’(non-necessaria)이라는 개념들을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었다. 부처는 이 방법을 처음부터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별히 종교간의 대화 모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⁷⁾ 여기서 부처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의 환원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집중(集點)이 중요했다. 부처에게 구원은 ‘기독교의 본질’(substantia christianismi)에 속했다.⁴⁸⁾ ‘필수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라는 부처의 개념은 직접적으로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신앙 고백으로 엄격하게 귀결되었다.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교리가 구원이 우리의 몫(것)으로 분배되는 유일한 길이라면, 이 신앙교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변호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의 순전한 선포는 포기할 수 없는 좋은 일에 속한다. 바로 이 중심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가능해져야만 한다. 말씀은 항상 성령을 통한 은혜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약속을 그 말씀 자체 속에서 가지고 있다. 다양성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속에서 존재한다.

블라우어(Ambrosius Blaurer)는 1543년 12월 12일에 불랑거에게 보낸 편지

dissidorum in religione, verasque vias illa tollendi, et Christianam consensionem restituendi” [Strasbourg 1542], p. 2 recto-21 verso.

46) C. Augustijn, *op. cit.*, 3.

47) F. W. Kantzenbach, *Das Ringen um die Einheit der Kirche in Jahrhundert der Reformation*, Stuttgart 1957, 131ff.

48) H. Wagenhammer, *Das Wesen des Christentums. Eine Begriffsgeschichtliche Untersuchung*, Mainz 1973, pp. 50-54.

에서 부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악한 말로 그리고 좋은 말로 퍼진 루머와 비난과 적개심과 견딜 수 없는 조롱과 억울한 누명을 통한 정죄에 의해서 방해받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능한 한 폭넓게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는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되려고 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침체하여 사기를 잃게 될 때마다 그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도 했다. 왜냐하면, 부처의 대적자들은 그의 속에 있는 신적 능력을 완전히 고갈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⁴⁹⁾

마침내 황제의 독재의 결과로서 교회의 일치가 이해되어, 황제의 교회에 대한 독재가 도래되어, 실제적인 대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부처는 한계에 도달했다. 1542년에 부처가 멜랑흐톤과 함께 쾰른(Köln)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돕고 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 진영에서 이미 비판의 소리가 들렸다. 쾰른의 주교관구를 위한 교회법은 순전히 종교개혁적 관점에서부터 왔다. 다시 말하면, 교리와 설교와 성서가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했다. 여기서도 역시 칭의와 회개 및 회심의 삶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했다. 교회와 교회의 일치에 대한 신앙고백은 이 교회법 속에서 멜랑흐톤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그러나, 부처는 그의 변호 속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현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위탁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⁵⁰⁾ 이 교회의 표징(ecclesiae notae)은 기독교 치리와 순종과 함께 순수한 교리와 성례전과 신앙고백의 합법적인 집행이다. 이 교회의 일치는 성례전의 합법적인 사용을 가져오는 교리에서의 일치이다. 일치의 세 번째로 중요한 구성 요건은 직제와 목회자에 대한 청빙이다. 이 같은 부처의 아이디어가 성공한 종교개혁 운동에서 기능하였듯이, 말씀의 우위성과 화해의 대한 봉사의 강조와 지역에 위치한 실제적인 교회-존재는 종교개혁을 위해서 찬란한 약속들이 놓여 있는 곳이다. 이것은 종교개혁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서 독일 전역은 물론 유럽 전체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부터 부처가 이전에는 형제적인 대화 속에서 함께 하던 모든 자들에 대한 강력한 반대파가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같은 협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팜플렛과 문헌

49) G. Anrich, *Martin Bucer*, Straßburg 1914, p. 77.

50) Stupperich, *Bibl.*, No. 86, *Beständige Verantwortung*, LIII verso.

의 홍수를 이루었다.⁵¹⁾

황제 칼 5세(Karl V)가 전장(戰場)에서 율리히(Jülich)와 클레이프(Kleef)를 빠르게 정복하고, 네덜란드의 헬더란트(Gelderland)는 프랑스 부르곤디를 위해서, 쾰른은 교황을 위해서 보호되었을 때, 에큐메니칼적 노력(Reformatio Colonien-sis)은 이미 쉽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벤로(Venlo)의 평화(1543)에서 쾰른의 뜻이 확정되었고, 이와 함께 사실상 슈마르칼텐 전쟁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황제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개혁에 대한 그의 관점을 『타협안』(Interim, 1549) 속에 실행시키고자 압력을 가할 것을 약속할 수 있었다. 아직도 부처는 화해를 위한 그의 노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공간의 창조로 보는 것 같았다. 마침내 종교개혁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부처는 그가 계속 추진 하던 에큐메니칼적 협력사업을 거부했다. 부처는 교회에 대한 그의 이상(理想)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전에 부처에게 그토록 협조적이던 스트라스부르의 정부의 행정 관료들은 부처가 계속적으로 『타협안』을 거부하는 것을 정치적인 상황에서 허락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부처는 『타협안』을 받아들일든지, 아니면 스트라스부르를 떠나야만 했다. 부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부처는 1549년 4월 6일에 스트라스부르를 출발하여 4월 25일에 영국 런던에 도착하여 어린 왕 에드워드 6세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왕립대학교 명예 교수로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도왔다. 그는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마침내 영국에서 1551년 2월 28일에 소천했다. 그는 교회에 대한 그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영국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강력하게 이 사역을 계속하였다. 이 세상 속에서조차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왕국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왕국』(1550, *De Regno Christi*)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남겼다.

갈뱅은 부처로부터 많은 사상을 물려받았다. 갈뱅의 에큐메니칼적 활동과 부처의 에큐메니칼적 활동을 상호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는 없다. 네이언하이스(W. Nijenhuis)

51) M. Köhn, *Martin Bucers Entwurf einer Reformation des Erzstiftes Köln*, Witten 1966; J.V. Pollet, *Études sur les relations de Bucer avec les Pays-Bas, l'Allemagne du Nord*, Tome I, Leiden 1985.

의 책 제목처럼 우리는 갈뱅도 『교회일치 운동가인 갈뱅』(Calvinus oecumenicus)으로 부를 수 있다.⁵²⁾ 부처는 기독교적 성령론으로 인해서 역시 교회의 신학자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말씀의 포괄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신학자였다. 부처의 이상(理想)은 때로는 망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참 경건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든 자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실현되지만, 동시에 보이는 가운데서 성도의 교통으로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기독교회 속에서 교회론적 형태를 얻을 것이다.⁵³⁾

V. 결론

우리는 본교를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생애에 대한 개요로부터 시작하여, 부처가 에큐메니칼적 열망 속에서 어떻게 그의 에큐메니칼적 교회론을 형성했는지를 세 가지 차원, 즉 교회의 일치, 개신교회의 일치, 그리스도인들(기독교)의 일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통일성과 관련해서 부처는 성서와 초대교회의 교부의 사상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와 성령의 교통을 통하여, 교역자와 성도들로 구성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전의 합법적인 집행과 치리를 통한 교회의 일치성과 거룩성을 주장했다.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상호간에 영적인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개신교의 일치와 관련해서, 부처는 특별히 성찬 문제로 갈라진 개신교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상호간의 갈등은 사상의 내용적, 본질적 차이가 아니라, 언어를 통한 오해의 차이로 규정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관련해서, 부처는 ‘필수적인 것’(necessaris)과 ‘지엽적인 것’(non-necessaris)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라는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독일제국내에

서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에큐메니칼 활동은 물론, 재세례파와의 대화, 영국에서 성공회에 대한 종교개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상과 같은 기초 위에서 부처는 교회의 일치를 진작시키기를 원했다.

1) 부처의 에큐메니칼적 노력은 그의 교회 개념 속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견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 일치는 일차적으로는 불가시적이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존재한다.

2)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일차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부처의 교회 개념은 사랑과 일치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보이는 일치를 요구한다.

3) 폭넓은 의미에서 부처의 교회적 일치의 이상(理想)을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상황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만약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시행될 수만 있다면, 부처는 이 전체의 틀 속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 교회일치를 위한 기본적인 기초는 일차적으로 성서지만, 교부들이 전해준 순전한 신학이 있는 고대교회의 역사(歷史)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이상(理想)도 해당된다.

5) 부처의 에큐메니칼적 노력의 한계는 위의 이상적인 네 가지 요소들에게 완전히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2) W. Nijenhuis, *Calvinus oecumenicus. Calvin en de eenheid der kerk in het licht van zijn briefwisseling*, s-Gravenhage 1959.

53) MBDS II, p. 147.

<Abstract>

Martin Bucer's Ecclesiology in his Ecumenical Activities

Yoon-Bae Choi

This thesis treats of Martin Bucer's ecclesiology in his Ecumenical activities. This study begins to sketch the life of Bucer(= Butzer, 1491-1551) as a Reformed reformator. From Bucer's ecclesiology in his activities we find the unities of the churches, Protestantism, and Christendom. (1) The unity of the churches is very important for him. This unity is rooted in the Word of God and the doctrine of the Church Fathers. The unity is the unity of mystical body of Jesus Christ. This body is controlled by one Head, Jesus Christ, who is also the King of the church, and is animated by one Spirit of Christ. The marks of the church is the true preaching of the Word, the right administration of the sacraments, and the faithful exercise of discipline. (2) Bucer tried to reconcile the Reformed Reformation with the Lutheran Reformation. The denominational pattern of church life that was to develop in Protestantism could not have been imagined by Bucer. (3) Bucer put the accent on the unity of Christendom. He tried to unify the Reformation with the Rome Catholic Church in Germany until the Augsburg Intrim(1549). He aided the Church of England to reform their churches and society. He made a Anabaptist convert into the Reformed churches. The distinction which Bucer made between the 'necessaris' and the 'non-necessari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unity of Christendom.

It is said that Bucer is regarded as 'the spiritual father' of John Calvin. In his early days Calvin wouldn't like to take part in the 'Religionsgespräch' with Bucer. But under the influence of Bucer, he became an 'ecumenist'. In a letter to Archbishop Cranmer(April 1552), Calvin declared that the disunity of the church was to be ranked as one of the great evils of the time. "... the members of the Church being severed, the body lies bleeding. So much does this concern me, that could I be of any service, I would not grudge to cross even ten seas, if need were, on account of it."

Calvin is famous for an ecumenist. It is to be regretted that Bucer isn't well-known as an ecumenist. Reformed churches have been very active in councils of churches, and Reformed churchmen have provided outstanding leadership(W.C.C., W.A.R.C, etc.). Reformed churches may inherit their ecumenical heritage from the Reformed Reformation, namely, Bucer and Calvin.